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4월 9일 월요일 (음 2월 24일) 제202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1심'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재판부 "범행 반성 않고 변명으로 일관, 책임 전가"

미르·K재단 모금 강요 등 혐의  
삼성 영재센터 후원 등은 무죄  
국정농단 책임 박근혜·최순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18개 혐의 중 두 개를 제외한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혐의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과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오랜 기간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최씨와 친분이 있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며 "사기업 경영진을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누설하면 안 되는 청와대 문건을 장기간 최씨에게 전달하게 했다"며 "삼성과 롯데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SK에 89억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해 직업 공무원제의 근간을 훼손했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에 보조금을 배제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문화예술인은 유무형의 불이익을 입었고, 관련 직원들은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동스럽게 수행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초래한 결과가 막중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그 책임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자유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 등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

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비관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노태강(58) 당시 문체부 극장(현 제2차관)에게 정씨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하게 한 뒤 '나쁜 사람'으로 찍어 사직을 강요하고,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60)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밖에도 최씨의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49)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직선제 도입 이래 최초로 과반수를 득표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며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을 인정할지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반성을 한 적이 없고, 검찰과 특검은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며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을 인정할지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사유서를 통해 "건강 등 사유로 나갈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민 기자

## 전북도, 과기정통부와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산 협약

전북도는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7개 시도 및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산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공와이파이 지원 서비스는

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시설인 도내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도민편의를 고려해 2년에 걸쳐

총 800대를 구축할 계획이며, 2018년에는 270대를 구축하고 2019년에 530대를 구축완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이달 말까지 버스 와이파이 사업자 선정과 계약체결을 마치고 6월부터 8월까지 사업구축과 시범서비스를 운영한 후 9월부터 서비스를 개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6일 개막식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박순종 전주시 부시장 등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는 모습.

## 전주의 미래 먹거리 경쟁력 확인

시, 월드컵경기장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 열어  
3D모델링 피규어·농업용 방제 드론 등 관람객들에 '눈길'

전주시가 3D프린팅과 드론 등 4차 산업 혁명 관련 국제 박람회를 성공리에 치러내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주 월드컵 경기장 내 특별 전시장에서 펼쳐진 '2018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가 전국 초·중·고, 대학생과 가족 단위 관람객 등 약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밝혔다. <관련사진 4번>

3일간 이어진 이번 국제 엑스포에서는 관람객의 편의와 전시 효과 증진을 위해 '3D프린팅 산업관'과 '드론 산업관', '해외 전시관' 등 7개의 주제별 테마 전시관은 물론 '한국 국토정보 공사(LX) 특별관'과 '한국 토지주택 공사(LH) 특별관', '한국 교통안전공단 특별관' 등 총 120여개 업체, 180여개 부스가 운영돼 3D프린팅과 드론 등의 신성장산업과 중소기업, 관람객들의 만남의 장이 연출됐다.

먼저 3D프린팅 산업관에서는 웅진테크와 (주)아이겐 등 40여개 업체의 50여개 부스가 참여, 향후 미래 산업을 선도할 3D프린팅 제품을 소개했으며 '3D프린팅 디자인 경진 대회'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한 3D모델링 피규어와 생활 용품, 기타 아이템 등을 3D프린터로 출력해 보는 등 독특

하고 창의적인 캐릭터와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또 △3D프린터를 활용한 다종이 인형 제작 체험 △스캐러처 제작 △로봇 격투기 체험 △3D펜 아트 체험 등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3D프린팅을 쉽게 접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돼 '체험을 통한 4차 산업 저변 확대'라는 엑스포의 취지를 살렸다.

'드론 산업관'에서는 (주)신드론과 (주)새만금항공, (주)성진에어로 등 30여개 업체의 40여개 부스가 마련돼 농업용 방제 드론 등 다양한 드론 제품을 선보였다.

드론 축구 챌린지 대회장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ICT 융복합 레저 스포츠인 드론 축구의 전국 대회와 △드론 인형 뽑기 △드론 컷팅 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이어졌으며 행사가 끝난 후에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해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LX공사 농업용 방제 드론, LH공사 스마트홈 서비스, 교통안전공단의 자율 주행차 시스템 등 공공기관들이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분야를 주제로 이색적인 특별 전시관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엑스포 둘째 날인 7일 비즈니스 쇼케이스와 함께 진행된 미래 농업 포럼에서는 농업진흥청 주관 사업과 유망 중소기업들을 서로 연결하는 '매칭데이'가 열렸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들도 중소기업관에서 열린 각종 비즈니스 상담회와 기술 교류 행사를 통해 국내외 판로 개척과 신기술 습득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행사장 각 세미나실에서는 △3D프린팅 산업 육성 정책 △탄소 융복합 소재를 활용한 3D프린팅 기술 등을 주제로 한 '3D프린팅 국제 공동 심포지움'도 열렸으며 스마트 미디어 기반 미래 콘텐츠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미디어 산업 컨퍼런스', '저작권 세미나', '3D프린팅 산업 육성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전북 3D프린팅 산업 발전 협의회 총회', 일상을 새롭게 바꾸는 3D프린팅 기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엿보는 '3D프린팅 산업 컨퍼런스' 등 미래 신산업의 현주소를 동향,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박순종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우리 지역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신성장 산업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세계 신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 미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민 기자

**창공** CREATIVE SPACE  
전북콘텐츠기업  
육성센터

##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곳, 창공

콘텐츠 창작자들의 꿈을 실현시킬  
전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가 2018년 4월 12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입주기업모집**

접수기간 **4.9.(월) ~ 4.16.(월)**

신청자격 예비 창업가 및 도내외 사업장을 보유한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입주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21-26

문의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 063-282-202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ccia.or.kr)참조

### 사업개요

**창업육성**

<b>콘텐츠 창업리프</b>	<b>콘텐츠 창업 액셀러레이팅</b>
1step. 창업신인드래프트	1step.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2step. 1:1 전담 멘토링	페이지 제작지원
3step. 프로젝트 피칭데이	2step. 크라우드펀딩 사업화 지원
4step. 시제품 제작지원	3step. 크라우드펀딩 마케팅 지원

**캐릭터 제작지원**

- 문화유산캐릭터 데뷔 프로젝트
- 문화유산 캐릭터 활성화 지원

**콘텐츠 제작지원**

- 문화 콘텐츠 테라피 제작지원
- OSMU 콘텐츠 제작지원

**네트워킹 활성화**

- 콘텐츠 브릿지 데이
- 전략 세미나

**글로벌 마케팅 참가지원**

- 클러스터 조성 및 인큐베이팅 운영